

TV 17일



KBS1

00 KBS 뉴스광장

50 TV 소설  
<그대의 풍경>

25 아침마당

30 KBS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 날북철도 연결

특집 생방송

&lt;절마다 다시 달리다 1부&gt;

00 특선왕코르

미리기본경의선

55 KBS 뉴스

05 일요다큐 산(재)

30 날북철도 연결

특집 생방송

&lt;절마다 다시 달리다 2부&gt;

35 신나라 과학나라

00 엄마의 무릎학교

40 TV 유치원 파니파니

00 KBS 뉴스5

15 동물의 세계

40 파워! 정보시대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40 무한지대 큐!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제27회

5·18민주화 운동 기념 토론회

25 일요연속극

&lt;하늘민족 땅만큼&gt;

40 투데이 스포츠

50 특별 공개수배

00 KBS 뉴스9

55 수목드라마

&lt;마왕&gt;

00 보도특집

남북철도 연결 그 이후

&lt;전쟁과 평화는&gt;

00 KBS 뉴스리인

30 걸작드라마로운 지구

(6)끝없는 모험가, 인류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유유자작

KBS2

0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MBC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KBC/SBS

00 생방송! 모닝와이드

1~2부

EBS

00 걷기를 위한 10분

10 영어타기 정복

35 English cafe(재)

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lt;내 곁에 있어&gt;

30 생방송 오늘 아침

⑧ 30 아침 연속극

&lt;사랑하기 좋은 날&gt;

30 MBC 뉴스

55 MBC 뉴스특보

남북철도 시험운행

&lt;헬맥이었다&gt; 1부

30 인간극장 스페셜

&lt;카센터 미스 김&gt;(재)

10 MBC 스포츠

제12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에어로빅스 대회

20 지구촌 뉴스

00 회제의 드라마

&lt;불멸의 이순신&gt;(재)

00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

⑫ 10 과학의 세자평

20 뿌뿌뽀뽀 '아이 조아'

50 싸이킥스

30 도야지봉(첫회)

20 오리보고 세계보고

35 생방송 전국시대

6 30 MBC 뉴스

50 MBC 기묘열전

7 45 일일연속극

&lt;나쁜여자 착한여자&gt;

8 20 거칠없이 하이킥

55 틈집 MBC 뉴스데스크

9 55 드라마 스페셜

&lt;천의 전쟁&gt;

10 00 수목미니시리즈

&lt;메리디우스 공방전&gt;

11 05 해피 투게더

15 00 경찰의 달 특별기획

&lt;휴먼리얼티리&gt; 사랑'

&lt;밸리미술 선우네&gt;

12 15 MBC 뉴스24

25 MBC 100분 토론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TV ]

## SBS '동물농장' 제작진 동물학대 논란 해명

“주의력 결핍장애 소년 치유 과정 일뿐… 강아지 학대 안했다”

'동물 학대'(사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SBS '동물농장'의 제작진 등 관계자들이 잇따라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명의 글을 올렸다.

'동물농장'은 지난 6일부터 3회에 걸쳐 윤현진 아나운서를 비롯, 지웅이의 누나 김희선 씨와 '동물농장'의 윤영희 PD, 지웅이의 치료에 참여한 동물매개치료사 정효정 씨가 15일 잇따라 게시판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우선 방송에도 등장했던 지웅이의 누나 김희선 씨는 "지웅이가 ADHD(주의력 결핍장애)라고 강아지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많

이들 걱정하시는 데 몽실이는 누가 뭐래도

지웅이의 동생이고 지웅이의 손마음을

이야기하는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했다.

윤현진 아나운서는 "가족 분들이 최선을

다해 몽실이를 돌보고 있고 지웅이도 책임

감을 느끼며 여동생 몽실이를 쟁기는 달라

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 과정을 책임지고 옆에서 지켜본 동물

매개치료사 정효정 씨는 방송이 편집과정에

서 일부 자극적으로 비쳤다는 점을 인정하

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허



슬하게 몽실이를 방치하거나 학대시키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꼼짝이 아끼는 분들이 TV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당한 비중이 민영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김 교수는 "고비용의 디지털 방송 재원을 디지털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TV 소유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성급히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V 수상기 소유 자체를 납부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시청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수의자 부담의 원칙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면서 "KBS 일부(2TV)의 광고 기반 방송 전환과 시청자들이 고비용 디지털 방송을 수신료 기반 방송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BS, 수신료 채널·광고 채널 분리돼야”

건국대 김진영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를 수신료 기반 방송과 광고 기반 방송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수신료 인상 제원조달 문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KBS는 수신료 기반 방송과 광고 기반 방송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수신료 인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윈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방송 편성으로 보면 상

제원조달 문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KBS는 수신료 기반 방송과 광고 기반 방송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수신료 인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윈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방송 편성으로 보면 상

- 오래된 보청기(스티커) 보상판매 30%
- 건전지(밧데리) 가격인하

국제보정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금남공원앞) (062) 225-9970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

케이블·위성TV 17일



17일

17일